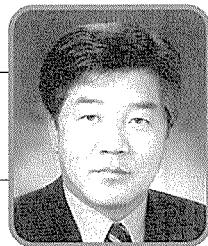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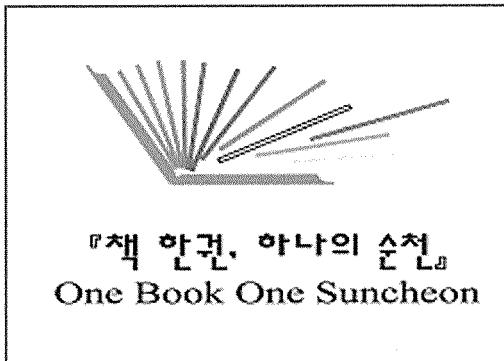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추진 『One Book, One Suncheon』 Project



양동의*



◀ 『책 한권, 하나의 순천』 로고

우리 순천시에서 『한 도시, 책 한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이 유치되어 그 준공을 앞두고 있을 즈음 기적의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단위 지식기반조성을 위하여 한도시의 지역구성원 모두가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크게 활성화 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으로 '한도시, 책한권'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했다. 이 운동의 취지는 책을 읽기만 하는데 그쳤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운동차원의 독서토론으로 끌어올리고자 함이며, 책 한권을 같이 읽고 토론함으로써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세상을 만들고 책읽는 공동체를 조성해감으로써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독서문화 운동의 새로운 지면을 열어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시는 전남 동부권의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평생학습도시』와 기적의도서관 전국 제1호관의 도시 명성을 책 읽는 시민사회로 승화시키고자, 전 시민이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일

* 순천시 문화관광과장, yang7131@hanmail.net

체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고, 전국 제일의 책 읽는 도시로 자리매김해나가고자 10월부터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2003년 10월초 『한도시, 책 한권』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기적의 도서관 건립위원회, 독서회 관계자 등과 수차례 걸쳐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좋은 책 선정 과정이라고 보고, 드디어 10월 17일 학생, 교사, 직능단체 등 200명으로 책선정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 27일 개최된 시민위원회에서 이철환 작 『연탄길』을 비롯한 후보도서 10권을 선정하였으며, 10월 30일 전문위원회의를 거쳐 11월 10일 순천 기적의도서관 준공식장에서 『등대』(문학과지성사, 임철우 作)를 선정도서로 발표하였다. 대상도서를 선정한 후 2004년 5월말 현재까지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에 1,300여권을 배부하였고, 연말연시 선물용 및 도서상품권과 함께 각급 기관단체의 시상품 등으로 배부한 700여권 등 총 2,000여권을 보급하였으며, 배부도서에는 선정도서 표시용 고무인을 찍고 스티커 5,000매를 제작, 부착하였다.

이번 사업을 위한 홍보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홍보탑,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제작하였다. 시민 공감대 형성과 외래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자 고속도로변, 시내교차로 등 4개소에 홍보탑을,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각급 기관단체, 대형 마트, 서점 등에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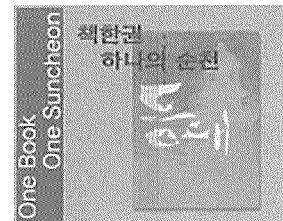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책 한권, 하나의 순천』 배너를 개설하여 “작가와 함께”, “등대를 읽고 감명깊었던 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함께 토론하는 “사이버 토론풍간”, “독서감상문”, “2005 선정도서 추천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로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로고의 상표보호를 위하여 의장등록을 추진중이다.

2004년 5월 5일 어린이날 순천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장에 홍보용 배너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15cm 자)과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작가초청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2004년 5월 21일에는 순천 기적의도서관에서 시민, 교사,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도 선정도서인 『등대』의 작가 임철우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회와 팬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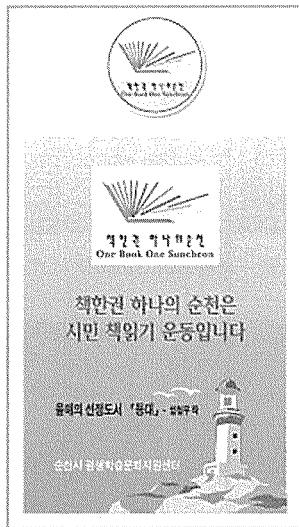
그 밖에도 총 12회에 걸쳐 민방위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과 행사시 시정관련 퀴즈 등



〈홈페이지 배너〉



〈작가초청 강연회〉



(책갈피 및 포스터 문안)

을 내어 당첨자에게 책 1권씩을 증정하여 본 사업을 홍보하였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책 한권, 하나의 순천』운동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상도서 보급을 확대한다. 『등대』를 관내 공공기관, 대학도서관, 읍·면·동 등 각계각층에 지속적으로 배부(2,000권 이상)하고 연중 각종 시상품(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의 자체 백일장·독후감 대회 개최시) 및 기념품으로 활용(1,000권 이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책 선물하기 시민운동도 추진한다. 각종 기념 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족이나 친지, 동료에게 선정도서 『등대』 선물하기 릴레이 시민운동을 퀸장 실시하여 시민 독서열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책갈피 5만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도서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을 홍보하고자 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는 학생과 일반부로 구분하여 '등대 독후감 대회'나 백일장 대회를 매년 연례 행사로 개최하여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잠깐퀴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과 주요 시정 추진상황 및 시책 사업을 소개한 후 잠깐 퀴즈를 운영하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으로 『등대』 책을 증정한다.

2005년 사업을 위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시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책 한권, 하나의 순천』 2005년 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선정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애로사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작년에 선정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도서를 선정하여 책 읽는 시민사회 형성과 토론풍화 정착에 기여코자 한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새로운 도서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기적의 도서관과 더불어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 이외에도 영아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북스타트』 운동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먼저 본 사업 추진기반을 착실하게 닦아나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서문화 창조와 정착을 순천에서 선도해 간다는 각오와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한 도시 책 한권』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